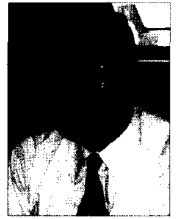


반려동물의 종류 및 특징

② 래브라도 레트리버(Labrador Retriever)



글 | 박수영 사무처장(대한수의사회)

신중한 품종 선택을 위한 고려사항

반려동물은 일회용 장난감이 아닌 수명을 다할 권리가 있는 생명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연령, 주거형태, 동물을 돌보아줄 수 있는 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첫째로 주거환경이 아파트나 주택밀집지역인 경우와 전원주택 또는 넓은 정원이 있는 개인주택인 경우로 나누어 환경에 맞는 개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해서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로 자신이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매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 동물은 주인이 같이 운동을 해야 할 것이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시키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함께 마음의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자주 털 손질을 해주어야 하는 장모종의 경우도 시간의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셋째로 가족구성원의 인원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

야 하는데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강하고 힘이 센 품종의 경우 관리소홀로 인해 어린 아이나 노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와 훈련교육을 할 수 있는 젊은층의 가족구성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품종선택을 위해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능력과 온순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품종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래브라도 레트리버(Labrador Retriever)

래브라도 레트리버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외유내강” 형이라 할 수 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함을 갖춘 품종으로서 과거 17세기에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섬에서 어부와 사냥꾼들이 사육하여 그들의 작업에 이용하였던 워터도그(Water dog)에서 유래한 견종이다. 이 오래된 개는 이 지역에서 그물에서 빠져 나온 물고기나 총에 맞은 사냥물을 회수하는데 매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레트리버(Retriever)란 영어로 “회수하다”, “되찾

다”의 뜻으로 이 견종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총기의 발달과 함께 엽견의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레브라도 레트리보는 오리 사냥개로서 최고의 명성을 떨쳤다. 유럽과 미국의 사냥대회에서 이들은 월등한 실력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한 차분한 성품과 뛰어난 지능을 갖추어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활약하기도 한다.

1. 성격

현재 레브라도 레트리버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에서 많은 이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유아가 있는 가정, 독신자, 노인 등 누구나 손쉽게 기를 수 있으며 단독주택부터 아파트에서도 폭넓게 적응한다. 레브라도 레트리버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말은 기분을 잘 맞춰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툼을 좋아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슨 행동을 하여도 쉽게 자극받지 않는 온순한 기질로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며 항상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고 가족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품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능이 높고 침착하며 인내심이 강하여 어떤 조건에서도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엽견,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외형

수컷은 56~62cm, 암컷은 54~59cm 정도이고 몸무게는 약 25~36kg 정도로 전체적으로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이다. 키보다 몸길이가 약

간 더 길고 허리는 적당한 넓이를 가지며 뒷다리는 근육질로 매우 강하다.

머리부분은 넓으며 부피가 있어 보이고 이마는 약간 돌출되었으며 머리는 살집이 없고 깨끗한 인상을 준다. 코는 잘 발달하였으며 치열은 협상교합으로 바르며 강하고, 귀는 머리의 약간 뒤에 위치하며 밀착되어 낮게 늘어뜨려 있으며 피질이 두껍지 않다. 지적으로 생긴 눈은 갈색, 흑색 등이다.



털은 검정색(Black), 황색(Yellow: 여우빛 붉은색[Fox-red] 부터 밝은 크림색 [Light Cream]), 초콜릿 색(Chocolate)으로 물결 모양을 주지 않으면서 짧고 조밀하고 촉감에 약간 거친 감을 주지만 천부적인 수영능력을 가진 품종답게 방수성이 뛰어나 짧은 털이지만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3. 사양 및 건강관리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하는 영리하고 강인한 개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화 등에는 큰 문제가 없고 운동은 생후 6개월경부터 시작하며 10개월부터는 산책과 자전거 운동, 공 던지기 등을 시키면 좋다. 그러나 운동할 때 항상 유전적으로 레브라도 레트리버에게 다발하는 고관절이 형성(영덩이 관절뼈의 이상)에 주의해야 한다. 갑자기 발을 절게 되거나 운동시에 조금씩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진행과 악화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보호자는 조기 검진과 걸음걸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해야 한다. ㉟

(다음호에 계속)